

믿음에 기초한 약속

롬 4:13~25

하나님 세계의 기초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 두 세계 간에 혼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자연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에 가지고 오면 그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이 그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합리성에 관한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이성과 상식에 관한 훈련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그 구원을 얻고 의로워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며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도 관심이 많지만 축복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약속과 축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약속은 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는 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선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지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도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다는 것을 잘 알고 경험을 합니다. 전도 집회 때 “예수 믿기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 믿기로 마음을 믿고 손을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화로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예수 믿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인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장애아였습니다. 이것이 집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분은 불교신자였는데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절망했습니

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사람의 소개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감사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인은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확 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기도 받고 아이가 치유 받았습니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눈물과 함께 있게 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과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참 지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나오고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을 얻고나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과 합리성 상식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에는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있지만 율법 생활에는 의무와 부담과 피곤함과 경쟁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공짜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일상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육에는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이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나의 생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얻고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하면 기분이 좋고 행위가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을 보상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

율법을 가진 자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다 구원하십니다.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시험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눈물도 감격도 감사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람이 되버린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내가 상속을 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선행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밥 값 내놔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로써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눌러 앉습니다. 그것을 다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밥값내고 밥 먹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밥값 내고 밥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었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따지고 고치고 계산하려 합니다. 계산하면 피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후사로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율법

으로 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이요 율법을 갖지 않은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실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도 내가 맛보거나 경험한 것,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자다가도 깨고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제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질서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굉장히 놀랍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율법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개념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민족의 조상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흥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흥해를 건너봐도 안 됩니다. 직접 건너봐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6절에도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17절에는 민족의 조상이라,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세 절에 나오는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서부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보통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위기에 처해졌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죽게 되었을 때야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25년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태가 없었는데 실제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받쳐지게 되었을 때 삼일 동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1백세에 난 자기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전율을 느끼는 장면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둘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십니다. 안되는데 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계산해서, 따져서 한 것, 누가 봐도 다 이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천지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올 때 그 어머니를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시야는 보이는 것 이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진리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큼니까? 들리는 세계가 큼니까, 들리지 않는 세계가 큼니까?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작고 예민한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인간의 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지는 세계가 큼니까, 만지지 못하는 세계가 큼니까? 내가 만지는 세계는 기껏해야 다섯 손가락입니다. 내가 언제 다 그 많은 것들을 만지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가 큼니까? 영원한 세계가 크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일부분을 느끼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헛소리한다 라고 합니다. 이상주의라고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황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미친 영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배는 바닷가에 서 지어야지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와, 당신 훌륭한 일합니다”라고 이야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있던 모세를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홍해로 괜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90만 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군대를 동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로 안 갔다면 홍해가 갈라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살아야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견뎌 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요,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경을 주위 깊게 읽어보십시오. 1백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성적 불능이었고 사라도 태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묵상하고 상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 보다는 신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체질도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

하는 아들을 칼로 찢어 죽이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생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실패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혼자 좋아서 기대하고 꿈을 꾸다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수히 섬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은 신약의 스물 다섯 구절마다 한 번씩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안보고도 믿습니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들이 약속입니다. 세상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마치 그 약속이 허왕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런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삼이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 된다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등 수많은 예언들을 성경이 기록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23절~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으로써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헛된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